

## 한·중·미 대학생 소비자의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식품소비를 중심으로 -

유현정\*, 송유진\*\*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물질 개발과 함께 재화의 정보가 점점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보의 신뢰성은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정보 신뢰성의 중요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수집한 후, 한국과 중국,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요구도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표시정보 확인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한국소비자의 식품안전행동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정보신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정보신뢰성은 타국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소비자 역량 또한 정보신뢰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식품안전사건·사고 또는 새로운 식품위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인 자세에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식품소비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식품안전정보, 정보신뢰성, 정보요구도, 식품안전행동

### 1. 서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고기 수입에 대한 뜨거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37.4%에 달했으며 2012년 4월 미 캘리포니아 주 컷소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함과 동시에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은 35.4%에 달하고 있다(서울신문, 2013. 3. 14). 이와 같이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점유율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 소고기로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유통·판매하는 등 이 세 가지 유형의 전체 적발 건수는 582건으로 조사 되었으며, 위반 장소로는 식육점, 일반음식점, 슈퍼가 가장 많았다(아시아뉴스통신, 2013. 5. 7). 이는 미국산 소고기 반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부당하게 미국산 소고기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시장의 현실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식품정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커뮤니케이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유현정·주소현, 2012). 지식은 수많은 소비자 정보들 중에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지각한 것을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내면화한 것으로(김영신 외, 2002), 소비자가 정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정보를 신뢰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탐색에 한계를 느꼈을 때, 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신뢰성은 정보요구도와 직결되어 식품안전문제가 발행했을 경우에 해당 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 보이기도 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범위 확대에 대한 압력이 있었으며, 현재 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국민일보, 2013. 5. 29).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2008년 이후 끝없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미국산 소고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상반되는 식품안전정보(예: 화학조리료 MSG, 방사선 조사식품, GMO의 안전성 등), 발암물질 검출사건 등 다양한 식품 분야의 정보들과 정부-소비자, 기업-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식품안전 사건이 비약되거나 오도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곧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으며, 소비자의 정보신뢰성이 화폐투표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 뉴스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중 외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경기일보, 2013. 3. 9)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

\* 제1저자, \*\* 교신저자.

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정보 신뢰성의 중요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많은 농수산물에 수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인 동시에 정치·사회·경제적 모든 환경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소비자들의 나라'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소비자 정책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인 동시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개방의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다른 중국과 소비자 운동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환경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비자 정보신뢰성

소비자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내용을 말한다(김영신 외, 2002). 소비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고 이를 검토하는 내적정보탐색의 과정을 거쳐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데(박명희 외, 2007), 이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즉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거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는 추가적으로 외적정보탐색을 시도하게 되는데(최아영·나종연, 2012) 이때 소비자가 탐색하는 정보의 질은 소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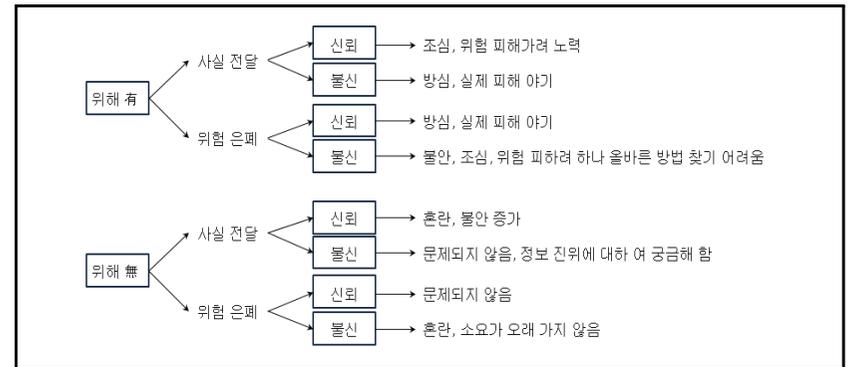
김영신 외(2002)에 따르면 소비자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성, 적시성, 정확성(진실성), 검증 가능성, 최신성의 다섯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 특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성은 의사결정을 위해 특정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어떤 정보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결과가 향상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적시성은 정보가 가진 시간적 가치를 말한다. 셋째, 정확성(진실성)은 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며, 넷째, 검증가능성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신성은 이용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일 때 정보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질을 판단하는 다섯 가지 특성 중에 관련성, 적시성, 최신성은 소비자가 제한적이지만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나 정확성(진실성)과 검증가능성은 전문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소비자는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정보원천(정보 전달자)에 대하여 이미 형성된 신뢰 등에 영향을 받아 정보를 선택하게 되며(Frewer, et al., 1996),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Siegrist and Cvetkovich, 2000). 특히 식품안전성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는 명백히 선호하는 정보원천이 존재하는데(Kornelis, et al., 2007), 이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반면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선호하는 신뢰집단에 따라 정보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Mohr, et al., 2007). 즉 소비자 개인이 전문적 지식이 없을 경우에 정보의 정확성(진실성)과 검증가능성은 정보전달자에 대한 신뢰성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행동반응을 나타낸다(유현정 외, 2011)(<그림 1> 참조).

한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당시 포장이나 좌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표시정보가 있으며 식품표시정보는 재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표시정보(예: 영양정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불신은 식품안전에 위협이 된다(유현정·주소현, 2012).

이와 같이,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물질 개발과 함께 재화의 정보가 점점 전문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보의 신뢰성은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정보신뢰에 따른 소비자반응 모형

※ 자료: 유현정 외(2011).

### 2. 소비자 정보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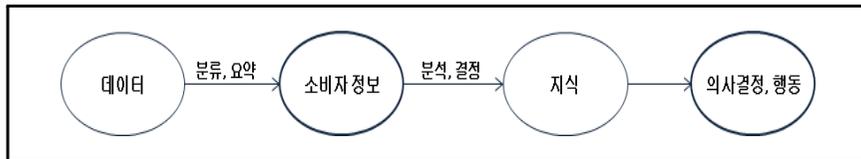
소비자 정보요구도는 정부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개선점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Rutsaert, et al., 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연관된다. 즉,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따라 정부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에 관한 정보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위협지각 또한 높아지며(Rossati, and Saba, 2004), 지각된 위협은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송유진·유현정, 2008). 송유진·유현정(2008)의 연구에서 안전의식은 안전지향성과 안전문제인식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안전의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 안전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 소비자는 대상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관련 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관여도는 관성적으로 대상에 주의·집중하는 것을 넘어 몰입(flow state) 하게 된다(Solomon, 2011). 이때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취하지 못하면 관련 대상에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요구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는 정보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

### 3. 소비자 정보와 행동 간의 관계

소비자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내용을 말한다. 관련분야의 테이터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공 처리한 결과가 소비자정보이며, 지식은 소비자정보를 우리가 사용가능한 수준까지 내면화한 것이다. 소비자정보를 지식으로 체화한 경우에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데이터가 소비자정보와 지식을 거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김영신 외, 2002).

소비자 정보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식품라벨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McCluskey & Loureiro(2003)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식품 라벨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연구하면서 식품라벨을 통한 소비자들의 정보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Lancaster(196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라벨을 통하여 식품의 속성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Wan, et al.,(2013)은 소비자들이 식품 라벨이나 포장지에 나타난 정보에 영향을 받으므로 식품 라벨과 포장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정보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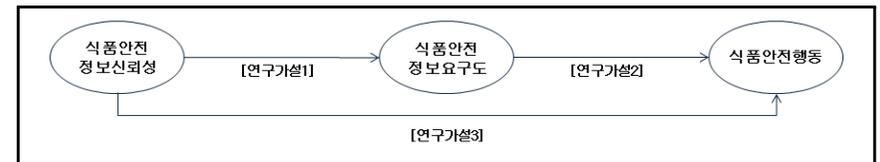


<그림 2> 소비자정보와 지식, 행동간의 관계

## III. 연구방법

### 1. 연구기설

- [연구가설 1] 식품안전 정보신뢰성은 식품안전정보 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식품안전정보 요구도는 식품안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식품안전정보신뢰성은 식품안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4] 삼국의 식품안전신뢰성과 식품안전행동의 인과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3> 연구모형

###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신뢰성과 식품요구도, 안전행동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각국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들로 한국은 충북대학교, 중국은 산둥대학교, 미국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각국의 소비자학과 및 경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수 2명에게 번역오류 등을 확인받았다. 척도의 안면타당도 역시 한국, 중국, 미국의 교수를 통해 확인받았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15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478부의 설문 응답지 중 부실 기재된 62부를 제외한 나머지 4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총 110명으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은 만 22세 이상이 49.1%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대학교 3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체중조절은 하지 않다가 86.1%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가 5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은 총 2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남자가 33.0%, 여자가 67.0%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19세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는 하지 않는 사람이 79.0%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국의 조사대상자는 총 82명이며 남성 30.5%, 여성 69.5%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은 만21세와 22세 이상이 28.8%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대학교 3학년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체중관리는 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전체
total		빈도 110	224	82	416
sex	Male	빈도 56	74	25	155
		백분율 50.9%	33.0%	30.5%	37.3%
	Female	빈도 54	150	57	261
		백분율 49.1%	67.0%	69.5%	62.7%
age	만18세미만	빈도 2	51	0	53
		백분율 1.9%	22.8%	0.0%	13.1%
	만19세	빈도 17	80	11	108
		백분율 15.7%	35.7%	15.1%	26.7%
	만20세	빈도 17	56	20	93
		백분율 15.7%	25.0%	27.4%	23.0%
	만21세	빈도 19	26	21	66
		백분율 17.6%	11.6%	28.8%	16.3%
만22세 이상	빈도 53	11	21	85	
	백분율 49.1%	4.9%	28.8%	21.0%	
grade	Freshman	빈도 26	107	0	133
		백분율 24.1%	47.8%	.0%	32.2%
	Sophomore	빈도 15	90	21	126
		백분율 13.9%	40.2%	25.9%	30.5%
	Junior	빈도 37	27	35	99
		백분율 34.3%	12.1%	43.2%	24.0%
	Senior	빈도 30	0	25	55
		백분율 27.8%	.0%	30.9%	13.3%
diet	Yes for a medical reason	빈도 8	33	7	48
		백분율 7.4%	14.7%	8.5%	11.6%
	Yes for a personal reason	빈도 7	14	21	42
		백분율 6.5%	6.3%	25.6%	10.1%
	No	빈도 93	177	54	324
		백분율 86.1%	79.0%	65.9%	78.3%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전체
health	Very healthy	빈도 14	37	6	57
		백분율 13.0%	16.5%	7.3%	13.8%
	Healthy	빈도 58	175	39	272
		백분율 53.7%	78.1%	47.6%	65.7%
	Average	빈도 28	10	32	70
		백분율 25.9%	4.5%	39.0%	16.9%
	Unhealthy	빈도 6	1	5	12
		백분율 5.6%	.4%	6.1%	2.9%
Not very healthy	빈도 2	1	0	3	
	백분율 1.9%	.4%	.0%	.7%	

#### IV. 척도의 정교화 과정

##### 1. 척도 추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보신뢰성, 정보요구도, 안전행동의 3가지 차원에 대해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척도를 추출하였다(<표 2> 참조).

정보신뢰성은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식품라벨이나 포장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인 유통기한, 제조일자, 국내산표시, 영양표시, 원산지표시, 식품첨가물표시, 유전자재조합표시, 식품광고표시의 8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유현정·주소현, 2012; 김효정·김미라, 2009; 김효진, 2008; 최정민, 2009; 손혜은, 2006; 정정화, 2008; 황정선, 2009; 진대일, 2009), 뉴스기사와 정부발표의 신뢰성과 정보 왜곡성의 3개 문항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안전 정보요구도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채널을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를 통해 측정하기 위해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식품안전행동은 구매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올바른 식품구매 순서 이행 행동에 관한 7개 문항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전달 행동의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척도의 구성

요인	code	문항	요인	code	문항
식품 안전 정보 신뢰성	R1	유통기한 표시 신뢰	식품 안전 행동	A1	TV 및 라디오 정보 제공 요구도
	R2	제조일자 표시 신뢰		A2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요구도
	R3	국내산 표시 신뢰		A3	EBS 교육강연 정보제공 요구도
	R4	영양표시 신뢰		A4	신문 및 잡지 정보제공 요구도
	R5	원산지 표시 신뢰		A5	식품포장지 정보제공 요구도
	R6	식품첨가물 표시 신뢰		B1	유통기한 확인행동
	R7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신뢰		B2	포장상태 확인행동
	R8	식품광고 표시 신뢰		B3	원산지 표시 확인행동
	R9	뉴스기사 신뢰		B4	유기농 제품 확인행동
	R10	정부발표 신뢰		B5	영양성분 확인행동
	R11	식품안전 정보 왜곡 가능성		B6	식품첨가물 확인행동
-	-	-	B7	생활잡화 구매 후 식품 구매행동	
			B8	오프라인 안전정보 전달행동	
			B9	온라인 안전정보 전달행동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된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유목화하고 요인별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척도 정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이 0.5 미만인 문항을 삭제한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0.4 미만인 문항을 삭제한다. 셋째, 유목화된 요인들을 투입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삭제한다.

1) 정보신뢰성

정보신뢰성을 구성하는 11개 문항을 한국, 중국, 미국의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국가별로 유목화된 척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요인적재값, 공통성, 신뢰도계수 등 요인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했을 경우 한국, 중국, 미국 모두 두 가지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본 결과, 요인1은 제조일자 표시, 원산지 표시 등 식품포장이나 가판대 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2는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뉴스기사나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를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이라 명명하였다.

2) 정보요구도

정보요구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중국, 미국 모두 한 개의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3) 안전행동

안전행동을 구성하는 9개 문항을 정보신뢰성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미국의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국가별로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요인이 유목화되었으며, 요인2는 요인적재값, 공통성, 신뢰도계수 등 요인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항인 B7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유목화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본 결과, 요인1은 식품 구매시 제조일자표시 확인행동, 영양성분 확인행동 등으로 식품포장이나 가판대 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품표시 확인행동'이라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2는 유통기한 확인행동과 포장상태 확인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통상태 확인행동'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3은 오프라인(구전)이나 온라인(인터넷 등)으로 식품안전 정보전달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품안전 정보전달행동'이라 명명하였다.

<표 3> 정보신뢰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중국						미국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수정	신뢰도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수정	신뢰도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수정	신뢰도
I2	.794	-.224	.680		0.860	I2	.815	-.150	.687		.849	I5	.788	-.061	.625		.830
I4	.781	.172	.640			I1	.810	-.233	.710			I6	.760	.322	.681		
I3	.753	.190	.604			I4	.716	.229	.566			I3	.733	-.094	.547		
I6	.744	.310	.649			I6	.696	.392	.638			I7	.697	.315	.585		
I1	.685	-.288	.565			I3	.676	.142	.477			I2	.660	.060	.439		
I5	.664	.283	.521			I5	.608	.408	.536			I1	.644	.183	.448		
I7	.657	.290	.515			I7	.604	.312	.462			I4	.588	-.154	.346		
I10	.161	.761	.605		I9	.143	.666	.463		I8	.347	.328	.228	a,b			
I9	.270	.662	.511		I10	.112	.634	.414		I9	-.025	.833	.695				
I8	.451	.499	.453	c	I11	-.100	.511	.271	b	I10	-.102	.753	.577				
I11	.109	-.294	.098	a,b	I8	.325	.436	.296	a,b	I11	-.082	-.299	.096	a,b			
eigen -value	4.416	1.425	누적% 분산	-	-	eigen -value	4.041	1.478	누적% 분산	-	-	eigen -value	3.642	1.624	누적% 분산	-	-
%분산	40.143	12.956	53.099	-	-	%분산	36.735	13.441	50.176	-	-	%분산	33.107	14.768	47.875	-	-

<표 4> 안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결과

한국							중국							미국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수정	신뢰도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수정	신뢰도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수정	신뢰도
B6	.879	.134	.032	.791		0.855	B5	.864	.051	.047	.752		0.858	B4	.820	.333	.203	.824		0.826
B4	.852	-.002	.063	.730			B4	.853	.076	.171	.763			B5	.788	-.122	.016	.712		
B5	.825	.136	.103	.709			B6	.806	.049	.037	.654			B3	.742	.476	.029	.778		
B3	.710	.221	.239	.611			B3	.719	.274	.132	.609			B6	.730	.122	.492	.789		
B1	-.026	.840	.172	.735		B7	.375	.248	.143	.223	a,b	B7	.532	-.074	.091	.297	b			
B7	.109	.646	-.009	.430	c	0.701	B2	.100	.889	.019	.801		0.754	B1	-.056	.885	.106	.797		
B2	.289	.641	.171	.524		B1	.168	.865	.011	.760		0.708	B2	.135	.799	.202	.698			
B8	.127	.076	.856	.754		B9	.077	.078	.870	.769		B8	.291	.055	.790	.611				
B9	.114	.166	.839	.745		B8	.181	-.028	.862	.776		B9	-.006	.223	.749	.636				
eigen -value	3.406	1.538	1.084	누적% 분산		eigen -value	3.367	1.464	1.276	누적% 분산		eigen -value	3.618	1.535	1.088	누적% 분산				
%분산	37.84	17.08	12.05	66.978		%분산	37.40	16.26	14.18	67.853		%분산	40.20	17.05	10.97	68.234				
	3	5	0				7	4	2				3	8	3					

\* a. 요인적재값 0.5 미만 / b. 공통성 0.4 미만 / c.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 저하.

112 한국위생관리학회지 제9권 제9호 2013. 09

4) 신뢰성 검증

식품안전 정보신뢰성, 정보요구도, 식품안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유목화된 요인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뢰성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5를 상회하였다.

<표 5> Cronbach's α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미국	중국	한국
식품안전	0.830	0.849	0.860
정보신뢰성	0.667	0.664	0.747
식품안전정보 요구도	0.877	0.822	0.812
식품안전 행동	0.826	0.858	0.855
유동상태 확인행동	0.738	0.754	0.701
식품안전 정보전달행동	0.695	0.708	0.681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유목화된 요인을 잠재요인으로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MI(Modification Indics)지수를 참고하여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정보신뢰성에서는 R2, R6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둘째,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에서는 삭제된 문항이 없었다. 셋째, 식품안전 정보요구도에서는 A3과 A5의 두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넷째, 표시정보 확인행동에서는 B4가 삭제되었다. 다섯째, 유동상태 확인행동은 미국의 경우에만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정보전달 행동에서는 삭제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 중국, 미국 모두  $\chi^2$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chi^2$ 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RMR은 0.1 미만, GFI, AGFI, CFI 등이 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표준요인적재치와 분산오차를 활용하여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하여 검증타당성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결과, CR값은 모두 0.6을 상회하였으며, AVE 역시 0.4를 초과하여 척도의 검증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표 7> 참조). 다음으로 척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VE값과 상관관계지수의 제곱(SMC)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잠재요인에서 SMC 보다 AVE 값이 크게 나타나 척도의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다중집단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한 교차타당성 검증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검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측정동일성검증은 다른 모집단이 설문지 내용을 동등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비제약모델,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공분산 제약모델, 요인부하량-공분산 제약모델, 요인부하량-공분산-오차분산 제약모델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간의 측정동일성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이 32.097 나타났다.  $\Delta\chi^2$ 표분분포를 살펴본 결과, P가 0.05이고  $\Delta DF$ 가 22일 때,  $\Delta\chi^2$ 이 33.92로 32.097보다 높게 나타나 추가적 분석없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적합도 지수	한국	중국	미국
$\chi^2$	149.788	138.639	116.727
DF	104	104	80
P	0.002	0.013	0.005
RMR	0.070	0.030	0.079
GFI	0.865	0.935	0.838
AGFI	0.801	0.904	0.757
CFI	0.920	0.968	0.900
IFI	0.924	0.969	0.906
TLI	0.895	0.959	0.868
NFI	0.788	0.888	0.752
RFI	0.723	0.853	0.674

<표 7> 개별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값 산정 결과

잠재요인	한국		중국		미국	
	C.R	AVE	C.R	AVE	C.R	AVE
표시정보 신뢰성	0.799	0.454	0.843	0.520	0.814	0.475
커뮤니케이션 신뢰성	0.806	0.686	0.642	0.473	0.827	0.738
정보요구도	0.804	0.586	0.899	0.750	0.853	0.665
표시정보 확인행동	0.825	0.614	0.826	0.616	0.779	0.564
포장/유통기한 확인행동	0.639	0.470	0.893	0.812	-	-
안전정보 전달행동	0.641	0.480	0.686	0.522	0.652	0.493

<표 8> 측정동일성검증 결과

경쟁모델	적용집단	$\chi^2$	DF	$\Delta\chi^2$	$\Delta DF$	sig.
비제약모델	한국, 중국, 미국	451.843	312	-	-	-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한국, 중국, 미국	483.940	334	32.097	22	유의하지않음

4. 최종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 9>와 같이 17개 문항을 최종 선별하였

으며 구조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9> 식품안전행동 및 정보신뢰, 요구도 최종 척도

요인	code	제거유무	요인	code	제거유무	
식품 안전 정보 신뢰성	R1		식품안전 정보요구도	A1		
	R2	CFA		A2		
	R3			A3	CFA	
	R4			A4		
	R5			A5	CFA	
	R6	CFA	식품 안전 행동	유통상태 확인행동	B1	
	R7				B2	
	R8	Cron/EFA			B3	
	R9			표시정보 확인행동	B4	CFA
	R10				B5	
	R11	Cron/EFA			B6	
-	-	B7			Cron/EFA	
-	-	-	-	B8		
-	-	-	-	B9		

※ EFA: 탐색적 요인분석시 제거, CFA: 확인적 요인분석시 제거, Cron: 신뢰도 검증시 제거

V. 연구결과

한국, 중국,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의 식품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로 척도를 정리하고 최종 선별된 척도를 활용하여 구조모형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1. 국가별 구조모형 분석 결과(연구가설 1, 2, 3)

한국, 중국,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들의 식품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로 척도를 정리하고 최종 선별된 척도를 활용하여 구조모형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식품표시정보신뢰성은 식품안전 정보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식품안전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보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품안전 정보요구도는 표시정보 확인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통상태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은 소비자안전행동인 표시정보 확인행동, 유통상태 확인행동,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표시정보 확인행동을 제외한 유통상태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식품표시 신뢰성은 정보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보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요구도는 유통상태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정보신뢰성은 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유통상태 확인행동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통상태 확인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보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요구도는 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정보신뢰성은 소비자의 식품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표시정보 확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중·미 3국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비교(연구가설 4)

한국과 중국, 미국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정보신뢰성이 정보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중국, 미국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삼국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에 외적 정보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투입되는 정보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는 판매자를 통하여 즉시 조달이 가능하므로 추가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도의 경우는 식품관련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는 문제이므로 소비자가 정보전달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경우에 정보전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전문화된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정보 노출도 양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학생 소비자로 정보탐색능력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집단이다. 식품안전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정부발표나 뉴스기사, 왜곡가능성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미디어를 통한 기사검색,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탐색이 가능한 집단일수록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소비자의 경우에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이 정보요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판단된다.

둘째, 연구가설 2에 해당하는 정보요구도가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은 연구 가설 2에서 동일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정보요구도가 표시정보 확인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통상태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통상태 확인행동의 요인이 없는 미국의 경우, 정보요구도는 한국, 중국과는 달리 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식품안전정보 전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연결되어 소비자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식품안전의식이 직접 소비자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따라서 소비자 주의를 확립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만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소비자의 의식과 역량에 차이 때문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가설 3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에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이 표시정보 확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중국은 식품표시 정보신뢰성은 구매안전행동에 해당하는 표시정보 확인행동과 유통상태 확인행동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은 식품안전 정보전달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신뢰성만이 표시정보 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경로는 한국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소비자의 식품안전행동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정보신뢰성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정보신뢰성이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산·판매자의 소비자기만행위 등으로 다양한 식품안전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의 식품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올바른 식품안전행동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 정보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정보신뢰성이 식품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식품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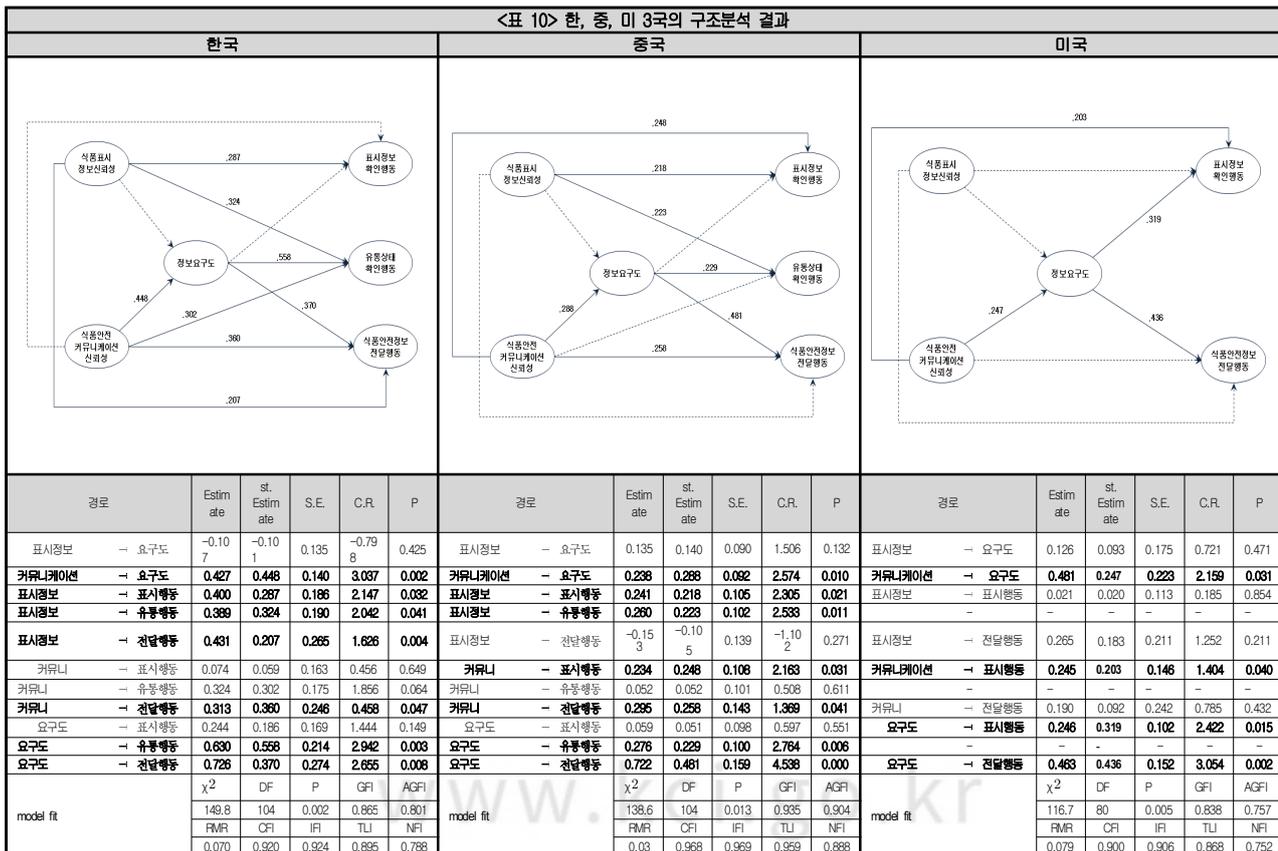
첫째, 한국사회에서 안전정보전달자의 역할과 식품안전 정보신뢰성은 타국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정보약자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상업적 정보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산지 거짓표기, 광고성 정보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립산물품질관리원(2012)의

자료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당정보 및 거짓정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식품안전사건·사고 또는 새로운 식품위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인 자세에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역량 또한 정보신뢰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되는데 유현정·주소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지식과 기능은 낮은 반면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식이 부족할 경우에 올바른 소비생활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비자 의식 함양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소비자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비자의식교육은 대규모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나 인터넷 콘텐츠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안전 지식과 기능이 낮은 소비자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식품소비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형마트, 식품업체, 외식장소 등에 배포하고 점포 내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소비활동에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미국의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대학생 소비자 집단 이외의 집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일보. 2013. 대학생 평균 생활비 '적정 수준'……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2013. 3. 9.
- 국민일보. 2013. 미국, 광우병 위험무시국으로 격상, 쇠고기추가개방압력 현실화되나. 2013. 5. 29.
- 김영신, 이희숙, 유두련, 이은희, 김상욱. 2002. 소비자정보관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효정, 김미라. 2009. 소비자의 식품위해 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9(1): 116-129.
- 김효진. 2008. 초등학생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명희, 송인숙, 박명숙. 2007. 토론으로 배우는 소비자의사결정론. 서울: 교문사.
- 서울신문. 2013. 美광우병 여과 소고기 수입 줄어들어. 2013. 3. 14.
- 손혜은. 2006. 고등학생의 식품위해 및 안전의식과 HACCP 인지도 조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유진, 유현정. 2008.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 서울과 상해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9(3): 215-244.
- 아시아뉴스통신. 소비자 미국산 소고기 불신...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미국산 다수차지. 2013. 5. 7.
- 유현정, 주소현. 2012.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체감도가 식품안전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49-70.
- 유현정, 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 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79-104.
- 유현정, 최은실, 김성숙, 이재은. 2011.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 안전.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정정화. 2008. 함평지역 고등학생의 식품 위생 및 안전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대일. 2009. 식품 위해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민. 2009. 일부 식품위생 안전 사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식품표시 이용실태에 미치는 변화.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아영, 나종연. 2012. 멀티채널 환경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는가?: 선호하는 정보원천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와 관련 요인. 소비자학연구. 23(2): 135-164.
- 황정선. 2009. 소비자안전체감지수개발연구. 서울: 한국소비자원.
- Solomon, Michael R., 황장선, 이지은, 전승우, 최자영 역. 2011. 소비자 행동론 제9판. 서울: 경문사.
- Frewer, Lynn J., C. Howard, D. Hedderley, and R. Shepherd. 1996. What Determines Trust in Information about Food-related Risks? Underlying Psychological Constructs. *Risk Analysis*. 16(4): 473-486.
- Kornelis, Marcel, Janneke de Jonge, Lynn Frewer, and Hans Dagevos. 2007. Consumer Selection of Food Safety Information Source. *Risk Analysis*. 27(2): 327-335.
- McCluskey, J. J., and M. L. Loureiro. 2003. Consumer Preferred and WTP for Food Labeling: a Discussion of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34(3): 95-102.
- Lancaster, K. 1966.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4(2): 132-157.
- Rutsaert, P., Z. Peiniak, A. Regan, A. McConnon, and W. Verbeke. 2013. Consumer Interest in Receiving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about the Risks of Pesticide Residues. *Food Control*. 34: 386-392.
- Rossati, S. and A. Saba. 2004. The Perception of Risks Associated with Food-Related Hazards and the Perceived Reliabil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9(0): 491-500.
- Siegrist, M. and G. Cvetkovich.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20.
- Wang, H., Holly, Xu Zang, L. Ortega David, J. Nicole, and Olynk Windmar. 2013. Information on Food Safety, Consumer Preference and Behavior: The Case of Seafood in the US. *Food Control*. 33: 293-300.

俞炫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 모델: 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소비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등이다. 소비자와 생활안전(공저, 2011),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공저, 2011) 등의 저서와 “식품위해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따른 소비자반응”(2013), “Perceived Risk and Safety-Seeking Behavior of Consumers in Seoul, Shanghai and New York”(2012)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yoohj@chungbuk.ac.kr).

宋裕珍: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관심분야는 소비자안전, 소비자행동 등이다.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다(momdew0924@hanmail.net).

투 고 일: 2013년 08월 07일  
수 정 일: 2013년 09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09월 28일

**The Effect of Information Reliability on Safety Behavior among Korean,  
Chinese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

– Focused on Food Consumption –

Hyun Jung Yoo, Eu Gene Song

Product information is increasingly professional and complicated because of bio technology developmen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is major effective factor in a complex market environment when consumer purchases some good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a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ffects food safety behavior directly and indirectly. In addition this research especially focused on analysing the differences for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afety behavior among Korea, China and America.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has positive effect on food safety communication reliability but not effect on food display information. Secondly, consumers' information needs positively affect food display information confirmation only in American. Thirdly, Korean consumers' food safety behavior is even more affected by information reliability than Chinese and American.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afety competency are very important factors of Korean society compared with Chinese and American. Therefor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atmosphere which offers consumers information rightly through restricting and monitoring the corporation. In addition, food safety education and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food consumption conduct manual should aim to develop consumers competency.

**Key words:** food safety information, information reliability, information needs, food safety behavior.